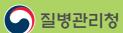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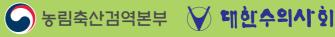
SFTS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보호자 안내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이 감염된 경우 드물게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로부터 2차 감염을 예방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SFTS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무엇일\Q?

- ◆ SFTS는 주로 사람이나 반려동물이 산책 등 풀과 접촉하는 야외활동 중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며, 드물게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이나 체액(소변, 침 등)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SFTS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1. 우리 반려동물이 'SFTS 양성'으로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과의 <mark>마지막 접촉일로</mark> 부터 14일까지 SFTS 의심증상 나타나는지 체크하기

* 38℃ 이상의 고열, 근육통, 설사·오심·구토 등 소화기 증상, 출혈 등 2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한수의사회*에 전화하기

* 대한수의사회
☎ 070-4907-0024

3



의료기관(감염내과)에 내원하여 의사에게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과의 접촉력이 있음을 알리고 진료받기

2.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 ① 물리적(울타리 등)으로 분리하기
- ② 동거 가족과 다른 반려동물이 SFTS에 감염된 반려동물의 <mark>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mark> 않도록 주의하기

2



반려동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동물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후 격리입원 권고

이동시 이동용케이지 이용

3



반려동물이 머물렀던 공간, 장난감, 배설물은 소독제로 소독하기

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알코올사용